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부 업무혁신 사례

- 연구비 집행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

A Case Study on the Business Innovation for increas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power
- Simplification and Digitalization of R&D Expenses Performance procedure -
김봉수* 이은영**최운백***장보현****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연구비 집행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사례 |
| II. 과학기술부 혁신성과 | 1. 개요 |
| 1. 개요 | 2. 추진성과 |
| 2. 일하는 방식 개선 | 3. 확산 및 발전방향 |
| 3. 업무역량 제고 및 정당한 실적평가 | IV. 결론 |

Key Words : Innovation, Yeon-gu-ma-ru, R&D budget execution

Abstract

Considering innovation a key to raising living standard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put in place various measures meeting the needs of the newly promoted Deputy Prim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measures include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as streamlining the work process to achieve the improvement in quality and efficiency; building the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promote performance-oriented environment; and running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for better competitiveness of government officials.

Further to the innovation efforts at work, the number of steps of the R&D budget execution is streamlined from eight to five and its payment period is considerably reduced to 15 days from 60 days. In addition, the digitalized R&D budget management systems such as e-Contract System, One-click Processing Monitoring System, and Information Service System through Short Message Service (SM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R&D performance. And these systems are efficiently integrated into a portal interface named "Yeon-gu-ma-ru."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pearheading nationwide innovation, will continue efforts to make viable achievements of innovation.

- * 과학기술부 혁신기획관, kimbs@most.go.kr, 02-2110-3580
** 과학기술부 혁신기획관실 서기관, eylee@most.go.kr, 02-2110-3581
*** 과학기술부 연구실안전과장, wbchoi@most.go.kr, 02-509-7850
**** 과학기술부 핵상황대응팀장, bohja@most.go.kr, 02-2110-3871

I. 서론

21세기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기술혁신이 산업 경쟁력 향상과 노동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 바,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본격 출범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효과적으로 가동하여 우리부에 주어진 새로운 미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변화를 조직내에 뿌리 내리고 직원 개개인에게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개선(혁신)이 필수적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우리정부에서 본격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해 왔지만 어찌 보면 과학기술부만큼 업무혁신이 시의적절했던 기관도 없었을 것이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과학기술부 혁신활동의 결과로 많은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냈는데, 이하에서는 우선, 과학기술부 혁신의 전반적인 성과를 돌아보고, 특히 과학기술계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던

* 1)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의 총괄 조정 체제 정착, 2) 미래 성장동력 확보시책의 체계적 추진, 3) 정부 R&D 투자확대와 효율성 제고 노력 강화, 4)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시책 추진, 5)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 양성·활용을 위한 기본 틀 마련, 6)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혁신사례로서 ‘연구비 집행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과학기술부 혁신성과

1. 개요

과학기술부 혁신의 중점방향은 혁신의 시스템화, 지속가능한 혁신문화 내재화, 고객만족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대표적인 혁신성공사례들을 소개한다.

2. 일하는 방식 개선

과학기술부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집중근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정시에 퇴근하여 현대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인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지식축적을 위한 「집중근무, 정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다.

집중근무, 정시퇴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간부 외부행사시 불필요한 수행인력을 없애고, 부재중 업무보고 및 관행에 의해 등록하던 불필요한 업무템플릿을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발굴·폐지하고, 간부회의시 자료를 1page로 한정하고, 실·국장 노트북 직접설치 등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추진하였다.

또한 과중한 업무를 업무시간 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에는 각종회의, 내부전화, 타부서 방문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온-나라 시스템으로 전 부처에 확산된 것과 같은 전자보고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활성화하였고 불가피하게 대면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가 소관과의 사무실을 순회할 때 일괄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보고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간부회의 인터넷 중계를 통해 간부회의 내용전달을 위한 회의 등 불필요한 회의를 최소화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브라운 백 미팅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객센터를 설치하여 직원이 고객센터로 고객을 직접 찾아가 민원청취 및 회의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만족 및 집중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고객센터는 정부부처 청사 내에 최초로 설치한 것으로 우리부의 한 민원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 부 대형 회의실을 개조하여 민원인 등 외부고객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 활용하고 있는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부내 인트라넷상에 대통령지시 사항 등과 같은 공통업무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과장급이상은 모두 원격결재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외부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업무자료를 개인PC가 아닌 중앙에 저장하여 자료공유 및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자료관리시스템)도 도입하였다.

3. 업무역량 제고 및 정당한 실적평가

1) 상시학습체계 구축

상시학습은 2006년도 제2기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출범에 맞춰 기존에 잘 구축된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전과 발전목표를 선도할 과학기술혁신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Learning MOST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과학기술부 TLA(Total Learning Architecture)를 마련하여 상시학습을 본격

추진하였다. 그동안의 공무원교육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교육으로서 학습성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웠지만, 자기주도의 학습, 문제해결수단의 강구, 수요자 중심교육, 성과지향형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관리시스템과 같은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 직원 300시간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며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등 활동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직원들의 참여 확대로 양적인 학습 시간이 대폭 증가하였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제고, 학습활동 강화에 따른 혁신활동의 증가 등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기존의 MBO(목표관리제) 및 근무성적평정 등 개인 단위 수준에서의 평가에서 벗어나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성과 지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핵심도구가 된다.

과기부에서는 2005년 조직차원의 성과관리를 도입한 이래, 2006년에는 조직과 개인, 업적과 역량(다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고도화된 성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서의 업적과 개인의 업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관련된 다양한 평가제도(국조실 정부업무평가, 인사위 직무성과계약제와 근무성적평정 등)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과관리체제의 정착으로 과기부 내부에 건전한 경쟁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놓고 있다.

Ⅲ. 연구비 집행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사례

1. 개요

“수개월씩 걸리던 연구비가 10일 만에 나와 시스템이 고장난 줄 알고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다” (서울대 모 교수)
“연구개발 전자협약제도에 대한 현장 연구원들의 만족도가 91%, 연구비 지급절차 단축 만족도가 87%” (전자신문, '06. 5. 3)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의 R&D 예산 중 약 25%를 집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에서 연구비의 신속한 지급으로 연구원들의 불편과 공급증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구비 집행절차 개선’ 과제를 중점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나타난 성과의 단편적인 예라 하겠다.

그동안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비 지급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새로운 연구에 돌입하기까지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시키며 연구원들에게 적절치 않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또한 종이에 의한 협약 체결시 여러 단계의 수작업을 거쳐야 하고 연구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공급증을 전화통화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불편이 함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부가 2005년도 혁신사업 및 2006년도 혁신브랜드 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연구관리 시스템 「연구마루」 도입이다.

2. 추진성과 - 기간은 단축하고, 단계는 간소화하며, 절차는 디지털화

1) 지급절차는 5단계로, 연구비지급은 15일 이내로 종전의 방식대로라면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연구비 지급까지의 절차는 총 8단계, 소요기간은 60일 이상이였다.

① 과제로 선정되어 ② 협약을 이루면 ③ 계획서를 접수하고 ④ 수정 절차를 거쳐 ⑤ 재 접수를 한 후 다시 ⑥ 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⑦ 연구비가 지급되고 ⑧ 카드가 발급되는 8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복잡한 행정절차와 모호한 규정 그리고 유사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연구비 지급 소요기간이 장기화 되어 연구개발 착수가 늦어진다는데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연구기관의 협조가 요구되는 연구비 지급절차 완화 방안이 함께 모색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연구비 지급단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고, 종전 60일 이상 소요되던 연구비 지급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2) 부정적인 의견에 의기투합으로 추진

시행초기에 이러한 연구비 지급기간 단축을 놓고 관련기관의 담당자들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성공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었다. 60일 이상 걸리는 연구비 지급기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4 수준인 15일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차를 무시하고 과제가 정해지는 대로 연구비부터 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었다.

연구비 지급기간 단축을 시행해야 할 당사자인 과학기술부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연구관리 담당자들의 이해부족과 비협조, 손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연구비 산정,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비를 서둘러 준 후 참여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문제 등 그야말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고, 특히 기업 참여(주관)과제의 경우에는 기업과의 협약이 완료된 후, 또는 참여기업의 출자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연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거듭되는 논의를 통해 기업참여 과제의 경우, 1차 착수연구비로 전체 연구비의 20%를 지급하고, 기업출자를 확인한 후 80%를 지급하도록 하여, 연구비 조기 지급과 기업부도에 따른 위험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 기업 참여과제를 포함한 과제연구비 지급절차 간소화를 전격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재단의 강한 실천의지와 목적이 옳으니 강력히 밀고 나가자는 과기부의 추진력이 의기투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 지급절차 간소화로 종전의 ① 연구 계획서 접수 ② 협약 및 연구비 지급 ③ 연구비카드 발급 등 순차처리 방식에서 3가지를 동시 처리하는 병행처리방식으로 개선하여 2005년 4월에 착수된 과제부터 시행하고 있다.

3) Enter 버튼만 누르면 협약 완료-전자협약시스템 도입

2005년 10월에는 전자협약제도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현재는 2006년 3월 시행과제부터 전자협약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전자협약 시스템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당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협약서를 주고받던 절차를 혁신하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종전의 협약과정을 살펴보면, 연구기관이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과학재단 측에서 협약을 요청하게 되고, 연구기관은 협약서 3부에 각각 관인과 간인을 한 후 우편으로 과학재단 측에 접수를 하면 또다시 과학재단은 이를 관인한 후 회신하는 등 다단계적 절차가 있었다. 아울러 협약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총 150매의 서류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종이 협약서에는 30번 이상의 도장을 찍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1주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행정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신속한 협약체결을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 전자협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도입에 앞서 과학기술부는 각 관련기관과 기술적인 검토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심사 숙고하였고 그 결과로 마련된 전자협약 시스템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인증기관의 확인만으로 과제협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연구관리 시스템에 연구책임자와 주관 연구기관 관리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협약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Enter” 버튼만 누르면 협약이 완료되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도장을 찍고 우편으로 오고가는 절차가 없어지면서 10일 정도의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4) One - Click 확인 시스템으로 연구원의 궁금증 해결

과학기술부가 추구하는 연구관리 혁신은 단순히 연구비 조기 지급에 그치지 않는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비의 빠른 지급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과제가 언제 접수되고, 평가 결과는 어떨고 언제 선정되는지 등의 궁금증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연구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해 줌으로써 연구원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연구과제 진행현황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보다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연구과제 One Click 확인시스템’이다.

One Click 확인시스템은 종전의 연구관리 시스템을 디지털방식으로 보완하여 ‘과제 신청-평가 신청-계획서 작성-과제협약-연구비 지급’의 각 단계를 웹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과제확인시스템’으로 2005년 8월,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기초연구지원사업에 도입한 이래 현재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5) SMS 제공으로 서비스 질적 향상

‘One Click 확인시스템’이 연구자가 궁금할 때 스스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관련정보를 찾아야하는 수동적인 서비스라면, 핸드폰 문자서비스(SMS)는 연구자가 찾지 않더라도 과제관리 행정서비스 공급자가 연구현장에 있는 연구자에게 e-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구과제의 진행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즉, 연구원들에게 1분 1초의 시간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가 알아서 알려주는 수요자 위주의 추가적인 서비스이다.

아울러 과제관리정보를 e-메일이나 핸드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려주면 이와 같은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연구자의 시간이 절감되고 이로 인해 연구수행과제에 대한 최적의 진도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2004년 기초연구지원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연구자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보다 질 높은 연구 기대

이와 같은 온라인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연구 관리의 전체 진행과정을 기다림 없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인 연

구기간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연구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더불어 보다 품질 높은 연구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의 도입 이후 서울대 창의연구 진흥사업단 단장은 “수개월 걸리던 연구비가 10일 만에 나와 시스템 고장인줄 알고 과학재단에 확인전화까지 했다”고 우스개 소리로 만족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2006년 3월부터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후 2개월만인 5월에 신규 선정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협약 등 제도개선에 따른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대상자 91% 이상이 제도 개선에 따른 신속함과 편리함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평가를 했다.

7) 가시적 성과 - 3,205년의 행정소요시간 단축, 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이와 같은 온라인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정부부문에는 행정소요시간의 단축과 아울러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고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시간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대성과를 계산해보면, 연구비 집행기간 단축을 통해 과학기술부 과제만으로 600년 이상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정부 전체로 확산시켰을 때에는 3,000년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협약의 경우에도 과학기술부 과제에서는 137년의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한해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 부처에 적용하게 되면 712년의 시간비용과 2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관리 혁신의 기대효과(예시)>

[연구비 집행기간 단축]

- ① 과기부 : 5,000과제×45일 단축 = 225,000일(616년)
- ② 정부전체 : 26,000과제×45일 단축 = 1,170,000일(3,205년)

[전자협약]

- ① 과기부 과제
 - 가. 시간절감 : 5,000과제×10일(협약서 주고 받는시간) = 50,000일(14년)
 - 나. 비용절감 효과
 - 우편발송비용 : 5,000과제×2,000원×2(왕복) = 2천만원
 - 계약수입인지비 : 3,000과제(협동/위탁 해당)×10,000원 = 3천만원
 - 다. 관리인력 감소 : 협약서 작성 및 관리인력 50% 감소
 - 라. 보관장소 불필요 : 5,000과제 관리 공간 불필요
- ② 정부 전체로 확산시
 - 가. 시간절감 : 26,000과제×10일(협약서 주고 받는 시간) = 260,000일 절감(71년 절감)
 - 나. 비용절감 효과
 - 우편 발송 비용 : 26,000과제×2,000원×2회(왕복) = 1억4백만원
 - 계약수입인지비 : 10,000과제(협동/위탁 해당)×10,000원 = 1억원

3. 확산 및 발전방향 - 통합연구관리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서비스 까지

1) 전부처로 확산

온라인 연구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루어낸 위와 같은 성과는 과학기술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 전체의 연구개발 사업에 전면 도입되어 공통관리 방안으로 표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06. 5월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본 전자협약제도나 연구비 지급절차 개선 등이 과학기술부 사업에만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사업 시행 기관간 상이한 연구비 지급기간과 절차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고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혁신 성과를 타 부처에 널리 알려 협조를 요청하고, 시스템 도입 희망부

처에 대하여 상세자문을 하는 등 시스템의 범부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8개 R&D 관련 부처에서 동 전자협약 시스템을 구축 또는 기획 중에 있다.

2)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

전자협약제도 도입, 연구비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한 연구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한 성과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과다한 연구성과 자료 입력 요구로 성과 입력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성과자료 입력의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을 SCI DB와 연동하여 연구 성과의 자동 입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불편 최소화 및 데이터의 정확도를 제고하였으며, 금년 내 특허 정보의 경우도 특허청 DB 등과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중에 있다.

3) 연구비 정산의 디지털화, 연구현장 모니터링으로 보완·발전


과학기술부는 또한 연구비 정산까지도 디지털화하도록 한 업그레이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3년간 정부 연구비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5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만족도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렇게 들게 되는 연구 현장의 의견과 애로 사항에 보다 귀 기울여 묵묵히 연구에만 매진하는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혁신으로 이어져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3) 혁신브랜드 “연구마루” 구축

이상과 같은 성과를 연구자의 편의성, 연구비 투명성, R&D의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는 연구 지원시스템으로 체계화하고 “연구마루” 라는 브랜드 명칭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브랜드화 하였다.

< 연구마루 >



- 브랜드 개념
 - 마루란, 최정상 또는 전통 한옥의 안방에 편리하게 드나들기 위한 디딤판을 의미하며 "연구마루"는 연구의 최정상에 효율적으로 도달·활용하는 수단임을 내포
- 브랜드 코어 : Easy and Fast
- 브랜드 비전
 -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선진 연구관리 시스템 실현
 - "디지털 시대를 리더하는 고객중심의 IT 서비스"
- 브랜드 미션
 - 연구자의 편의성 제고 및 연구비 활용의 투명성 제고 (1~2단계)
 - 연구관리활동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3단계)
 -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기반 마련
- 브랜드 약속
 - 전자적 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 중심의 IT를 실현하겠습니다.
 - 연구비를 원하는 시기에 지급하겠습니다. (과제 선정후 15일 이내)
 - 수십번의 도장을 찍는 절차 없이 "Just One Click"으로 협약과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 브랜드 가치
 - 파격적이다. (과제 선정후 15일 이내 연구비 지급)
 - 연구관리절차가 매우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 슬로건 : 과학기술 연구관리의 새로운 장
 - 과학기술부의 새로운 연구관리시스템인 연구마루에서 연구원들의 진가를 발휘하고,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편리하고 자유로운 공간, 사용자와 관리자의 편의를 두루 도모한 시스템 연구마루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

팀의 혁신 성과가 ‘연구비 집행 만족’, ‘투명한 신뢰관계 구축’ 등으로 구체화되고, 관계부처 등과 공유하여 혁신 성과를 극대화해나가기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가 연구자에게는 연구의 질적 극대화를, 정부와 연구관리기관에는 효율적인 연구관리를 가능케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IV. 결론

과학기술부는 혁신의 기초 다지기에서 시작하여 조직 내부의 업무프로세스 개편, 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시적인 혁신성과 창출까지 일관된 혁신활동을 추진해왔다. 정부 혁신관리평가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되지는 못했으나 의미 있는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2007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혁신활동을 통한 조직 생산성 제고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확산을 통한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중점 혁신방향으로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1. 과학기술부,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 2006
2. 과학기술부, “혁신서곡 2막 1장”, 2006
3. 과학기술부, “2005년도 혁신백서”, 2005
4. 과학기술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2005
5. 과학기술부, “혁신서곡 1막 1장”, 2005
6. 대한민국정부, “국민과 함께 한 정부혁신 3년”, 2006
7. OECD 정부혁신아시아센터, “정부혁신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삶과꿈, 2006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온라인 연구관리 시스